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인천 소식

이 원 구 · 인천일보기자

인천 30cm 서가운동 첫발

‘서점마다 30cm 공간을 확보해 인천 책들을 꽃아 인천 시민들이 지역에 관한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의 <30cm 서가운동>이 대단원의 첫 장을 넘겼다.

‘인천 30cm 서가운동 본부’(공동대표·황호수 인천일보 사장, 김성중 인천의제21 실행위원장)는 “자녀해부터 차근 차근 준비해온 운동본부의 구체적인 일정이 잡혔고, 인천지역 150여 서점들이 30cm 서가운동에 동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 달부터 본격적인 운동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1차 연도인 올해는 ‘인천석급’, ‘개항과 양관역 정’, ‘인천시사’, ‘인천이야기’ 등 지금까지 발행한 수십 여권의 인천 관련서적을 유가자와 무가자로

나누어 각 서점에 제공, 시민들이 인천을 비롯 관련 책에 친근하게 다가서는 계기 마련 및 분위기 조성에 역점을 둘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이렇게 제공한 책의 인천시민 이용도 모니터링과 독후감 공모 및 소감문 공모 등을 통해 효과를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방향 등을 모색하게 된다. 2차 연도인 내년에는 인천시민들이 지역단체와 전반적인 인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인천시민 공통의 의식과 관심사에 대한 정보 교류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민이 하나됨을 알리는 행사나 사업을 공동 추진하고 서점별 전담코너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대형 마트, 다른 지역으로의 확대를 위한 간담회 개최까지 추진된다.

<30cm 서가운동>은 인천일보와 인천의제21이 공동 주최하고 도서출판 다인아트가 주관하며, 사단법인 한국서점조합연합회 인천시서점조합(조합장·문인홍)이 동참한다. 또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후원을 맡았다.

제1회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열려

‘여성 - 좌절과 기쁨’이라는 주제로 준비해온 제1회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가 6일부터 12일까지 인천중합문화예술회관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103명의 인천지역 여성미술인들이 참여하는 여성미술비엔날레로 일주일간 500여 점의 미술작품 전시와 함께 축하공연과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펼쳐졌다.

먼저 지역의 미술인들과 각계인사들이 참여하는 개막식이 30분간의 축하공연에 이어 6일 오후 6시 중합문화예술회관 전시관에서 열렸다.

또 7일 오전 10시에는 페미니즘 워크숍이 마련되며 폐막 전날인 11일 오후 6시에는 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 출품작가들과 만남의 자리도 마련됐다.

개막일부터 참여작가별로 주어진 7~8m 가량의 전시공간과 작품관리 등이 작가에게 맡겨졌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는 일찌감치 타지역의 여성

정월대보름 행사 다채

지난 5일 정월대보름을 전후해 인천지역에서도 한해의 안녕과 행복을 기원하는 다양한 전통 민속놀이 행사들이 펼쳐졌다.

중구 신평시장 일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문화단체인 터진개 문화마당 황금가자에서는 주말인 지난 7일 오전 11시부터 <터진개 지산밧기> 행사를 마련했다.

지산밧기는 집을 돌아다니며 소원을 빌어주는 행사로 정월대보름에 마을사람들과 함께 했던 대표적인 전통놀이. 고사에 이어 신평동 일대에서 동네의 액을 쫓는 달집태우기와 전통놀이마당, 그리고 소원아루기, 먹거리·볼거리 마당 등이 이어지며 길놀이, 앉은반 공연과 집놀이 등의 신명나는 풍물들도 선보였다.

또 전통놀이로 윷놀이와 널뛰기, 투호, 제기차기, 새끼줄고리기, 팽이돌리기 등을 시민들과 함께 했다. 정월대보름 행사의 마지막은 지역 상인들과 시민들이 보름달 아래 모여서 함께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와함께 계양구 사설관리공단에서도 고유의 전통문화를 재현·계승하고 구의 번영과 한해 무사교를 기원하는 <지산밧기> 행사를 마련했다

오는 4일 11시 30분부터 계양구사설관리공단 도드리풍물단이 계양구청 정문 광장에서 시작해 작전·서운동, 노인복지회관 등 각 동과 의회, 계양문화회관 등을 순회하며 흥겨운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준비했다. 이어 7일 오후 3시부터 계양문화회관 공연장에서는 정월대보름맞이 <국악한마당> 공연이 펼쳐졌다.

이번 공연에는 도드리 풍물단을 비롯해 이은관(배뱅이굿 인건문화재), 유지숙(서도소리 준인건문화재), 박준영(배뱅이굿 준인건문화재) 등이 출연해 배뱅이굿과 서도소리, 경기민요 등을 선보였다.

미술인들에게도 주목을 받고 있어 인천여성미술의 현장성을 확인하는 자리일 뿐만 아니라 인천여성미술의 방향성도 조심스럽게 조망해 보는 의미있는 미술축제로 평가받았다.

인천시 지역영상산업 지원나사

인천시가 21세기 최고의 경제산업으로 뜨고 있는 영상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인천시는 문화예술과 내에 조만간 '영상팀'을 설치하고 '영상위원회'를 구성하며, 할리우드같은 영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영상단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조만간 3~4명으로 구성된 '영상팀'을 신설, 영상 뿐 아니라 게임, 음악, 방송 및 광고, 출판, 캐릭터 산업을 전담하기로 했다. 영상 분야는 특히 영화와 TV드라마 뿐 아니라 비디오·애니메이션, CF 촬영 등 종합적인 영상관련 사업을 유지하고 제작업체를 유인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민간인이 포함된 '영상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인 영화 유치와 촬영 협조에 나서고, 홍보를 통해 부산처럼 전 시민들이 호응하고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용유도나 무의도 등 인천에서 가까운 섬이나 청라매립지, 송도신도시 등 적당한 부지를 물색해 영상단지로 지정하고, 영화제작자들에게 그곳에서 마음껏 세트장을 지어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영화로 유명해진 설마도를 관광객이 보다 자유롭게 오갈 수 있도록 무의도 큰무리 해수욕장과 설마도 사이 480m에 모두 3억원을 들여 올 연말까지 징검다리를 놓기로 결정했다.

시의 이같은 움직임은 영상산업을 포함한 첨단 문화산업이 지역의 경제상황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 지자체나 국가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송도신도시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외국인과 외국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선 영상산업을 통한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며 주5일 근무제에 따른 시민들의 문화적 욕구가 커짐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경기소식

류 주 선 · 경인일보기자

가족뮤지컬 <소공녀> 공연

인양에 소재한 서울유스뮤지컬예술단이 창단 3주년 기념작으로 가족뮤지컬 <소공녀>를 제작, 지난 2월 13~15일 군포시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공연했다.

이 작품은 지방 예술단체로서는 드물게 2억원의 제작비를 들여 무대장치와 의상에 공을 들였고 안무와 조명, 무대 등 스태프의 절반 정도가 일본인 전문가들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또 공연에 출연한 어린이 20여 명은 이 단체에서 2년 이상 뮤지컬 교육을 받아 전문 배우 못잖은 노래실력과 연기를 보여줬다. 관객들에게 친숙한 얼굴인 개그우먼 서현선, 강남영 등이 출연해 분위기를 돋웠고 중간배우 강승원, 이달형도 작품을 든든하게 받쳐줬다.

김시우 씨가 연출과 대본을 맡았고 작곡 홍대성, 편곡 이시다 사치코, 안무 사사키 준코, 무대 카토 치자, 음악감독 정은정, 조명 아미카미 에스오 등이 주요 스태프로 참여했다.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발표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송태호)이 올해 지원할 일반공모지원사업 509건, 특별공모지원사업 31건을 지난 2월 11일 선정, 발표했다.

총 15억원이 지원될 일반공모지원사업은 미술 부문이 90건(지원금 2억 2천 3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전통예술부문이 72건, 음악 70건, 문학 68건, 무용 44건, 사진 38건, 연극 34건, 마을축제 25건, 지역축제 20건, 대중예술·전통문화연구 각 16건, 영상 13건, 실험예술 3건 등의 순이었다. 건축부문은 신청이 단 한건도 없었다.

올해 처음으로 사업부문에 포함된 마을·지역 축제, 대중예술·전통문화연구·실험예술 등이 전체 지원건수의 15%를 차지했다.

5억원 지원예산 중 3억 8천 850만원을 지원하게 될 특별공모지원사업의 경우 <네트워크를 이용한 조각가 구분주 추모전시회> 등 미술부문이 15건(지원금 7천 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무용·연극 각 4건, 문학 3건, 음악·전통문화 각 2건, 국악 1건 등의 순이었으며, 정책연구는 4건의 신청이 접수됐으나 모두 탈락됐다. 6천만원 지원을 받게된 국악창작 분야의 민요곡 <흰머리 산후수>(민요연구회시나위)는 민요를 소재로 한 음악적 표현에 참신성·전문성이 뛰어나 민요 CD 발매를 조건으로 국악부문 지원사업 예산액 전체를 지원키로 했다.

해외우수작품 초청공연 할발

경기도문화예술회관(관장 홍시중)이 올해부터 해외우수작품 초청공연지원사업을 벌여 관심을 모으고 있다. 회관 측은 그동안 1년에 한 두 차례 국내 우수작품 초청공연을 해왔으나 해외작품 초청은 올해가 처음이다. 회관 측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해외작품 초청공연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올해 공연제작 예산이 지난해보다 50억원 이상 증액된 65억원으로 책정된 덕분이다. 이에 따라 회관 측은 이중 10억원 정도를 국내외 우수작품 초청공연에 투입, 도내 주요도시와 문화소외지역 중심으로 20회 정도를 공연할 계획이다.

그 첫 작품은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 소재한 극단 파르스의 <환타지아, 바람을 기다리는 여섯 사람>이다. 지난 2월 17~26일 수원을 비롯한 가평, 포천, 양평 등 도내 8개 도시에서 15회 순회공연을 가졌다. <환타지아>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마주치는 상황을 재치와 익살, 곡예적 몸놀림으로 녹여낸 여섯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마임극이다.

회관 측은 앞으로 4억원 정도를 들여 해외우수작품을 초청, 6월과 11월에 수원과 의정부에서 총 20회 공연할 계획이며 국내 우수작품 초청에는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밖에 경기도립오페스트라와 극단에는 동구권에서 유명 트레이너를 초빙, 국제 감각과 트렌드를 흡수하는 한편 도립예술단 역량강화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강원소식

남궁현 · 강원일보기자

‘심마니 찾은 방동약수’ 전설
아시나요

‘호랑이가 보호한 오세동자, 용마가 태워간 장사, 심마니가 찾은 방동약수, 여우고개, 벼락바위, 방아다리수풀 도깨비, 처녀바위, 호랑이를 만난 이야기...’

도내에 전승돼 오는 구비문학(口碑文學)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강원도가 점차 소멸돼 가고 있는 구비전승 이야기를 체계적으로 보존·전승하고 관광문화로 자원화하기 위해 나섰다.

이야기로 전승되고 있는 설화, 전설, 민담신화를 채록하고, 이같은 구비전승 이야기의 생성배경과 제반의식, 기능성 등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일에 나서서 모두 1,151편을 채록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구비문학 학술조사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북한강권역 5개 시·군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됐으며 올해는 남한강권역 6개 시·군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그동안 채록한 구비문학은 호녀·열녀 설화를 비롯 교훈·지혜·인물설화, 동·식물설화, 지명유래·풍수설화 등 우리민족의 삶과 신앙에 밀접하게 결부된 것이 대부분이다.

특히 공동체 사회에 기반을 둔 당대 민중의 생활을 보여주고 우리 문화의 기층을 이루고 있는데다 우리민족의 정신적 문화를 담고 있는 문화의 꽃이어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춘천 남산면의 전설 중 ‘자식을 잡아먹은 어머니에 얽힌 원수간’이라는 지명전설과 ‘방아다리수풀의 도깨비’에 대한 전설에서는 가난을 숙명으로 여긴 마을사람들의 정서를 엿볼 수 있다.

화천의 ‘영원동과 장수바위’, ‘장사 엄청이 이야기’ 등은 뜻을 펴지 못하고 죽은 인물에 대한 설화지만 동시에 숨죽여 살지만은 않겠다는 화천 주민들의 의지를 보여주는 설화여서 흥미롭다. 또 가난한 선비가 미륵의 감응을 얻어 출세한 ‘미륵바위의 유래’나 남녀의 슬픈 운명과 관련된 ‘처녀고개 유래’ 설화는 서사적 구조를 비교적 잘 갖춘 화천의 대표적 설화로 꼽힌다.

인제지역은 약수가 신앙의 대상이 되면서 전설을 형성한다. 방동약수는 ‘가난하고 착한 심마니의 꿈에 사신이 나타나 산삼을 점지해 줘 산삼을 캐고, 그 곳에서 약수가 나왔다’고 전해진다. 인제에는 또 민중신앙으로서의 미륵전설, 불교신

앙으로서의 보살전설, 토속신앙과 외래신앙의 갈등을 표출하는 지내전설과 부래전설도 여러 편 전승되고 있다.

양구의 팔호자이야기, 동면 문등안골 호자이야기 등은 열녀설화와 더불어 지역민들에게 효 사상을 부각시켜 고단한 삶의 극복 원동력이 효에 있음을 주지시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철원은 대마리의 ‘내메이 방축 유래’, ‘부자 고지네’ 설화가 두드러진다. 모두 평야지대로서 대규모 논농사가 행해지고 있는 철원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이야기로 분석되고 있다.

강원도를 음향(音響)으로

클래식 정통음악을 선사하게 될 <대관령국제음악제>와 때맞춰 오는 8월 속초시에서 메머드 대중음악축제가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속초시가 밝힌 <2004 대한민국음악축제> 기획안에 따르면 속초시 10억원, 문화방송이 15억원을 각각 부담, 총예산 25억원의 규모로 국내최대의 음악축제를 개최한다는데 합의하고 최종 조율만 남겨놓고 있다. 오는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8일간 속초시 전역에서 다채로운 음향(音響)을 내뿜는다.

7월 24일부터 8월 8일까지의 일정으로 강원

도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고 있는 <제1회 대관령국제음악제>가 정통 클래식음악을 제공할 계획인데 비해 <2004 대한민국음악축제>는 대중음악 전반을 망라하는 축제로 개최한다는 계획이어서 강원도가 음악의 고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수욕철 관광객유치에 큰 기여를 하게 될 <대한민국음악축제>는 트로트를 비롯한 락과 발라드, 힙합, 세미클래식에 이르기까지 대중음악의 전분야가 총망라돼 남녀노소 각각 취향대로 즐길 수 있는 음악축제 이다.

강원도출신 작가, 2명의 한국화전

도출신 작가의 격조 높은 한국화전이 동시에 열려 눈길을 끌었다.

현대문인화의 전형으로 평가받고 있는 영월출신 홍석창 홍익대학교수의 개인전이 지난 2월10일부터 28일까지 서울 관훈동 노화랑에서 열렸다.

문인화는 직업화가가 아닌 선비들이 여가(餘暇)로 행한 그림. 선비의 상징으로 시적(詩的) 격조가 있는 그림들이다. 문인화는 능숙한 솜씨만이 아니라 넓은 교양과 깊은 사색으로 뒤여진 성찰로 그려진다. 홍 교수는 여가에 현대적 감각을 더해 독창적인 문인화 세계를 구축하고있다. ‘가(菊)의 파

마임전용 소극장 추진

국내 유일의 마임전용소극장 ‘마임의 집’ 건립이 추진되고 있다.

세계 마임의 메카인 춘천에 마임예술을 확대 보급하고 춘천의 지역문화예술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임의 집을 건립하자는 움직임이 문화예술인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다.

특히 마임의 집은 춘천마임축제에 국내·외관광객을 끌어들이 수 있는 문화공간으로서 지역문화관광자원의 개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게 문화예술인들의 주장이다.

지난 2월 28일 개관 6주년을 맞은 마임의 집은 3월부터 <매주 토요일 춘천엔 마임이 있다>는 모토로 ‘매월공연’에서 ‘매주공연’으로 전환한다.

또 올해 마임의 대중화를 위해 여름방학동안 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마임교육캠프>를 운영할 예정이며 문예진흥기금 1,700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현재 마임의 집은 춘천예술마당내 창작관에 20평 남짓한 협소한 공간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특색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사)춘천마임축제는 지하 1층·지상 2층 규모로 마임의 집을 건립, 극장 춘천마임축제 사무국 자료실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춘천마임축제의 하이라이트 도깨비난장이 열리는 고슴도치섬(대표 김성주)측에서 부지 3,000평을 무상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춘천시 관계자는 “2천차 사업으로 40억원을 들여 연면적 60평 규모의 마임의 집 건립을 계획,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춘천마임축제는 문화관광부 선정 문화관광축제로 2001년부터 4년 연속 선정됐다. 2004춘천마임축제는 오는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동'은 공간을 휘저으며 힘있게 그어나간 윤필이 돋보이는 추상적 작품. 마치 끝씨를 쓰듯 일필휘지로 그려냈다. 반면 '청(淸)'·'빛'·'심한(心閑)'·'취흥(醉興)'·'5월'·'화생(化生)'·'청향(淸香)'·'유향(幽香)' 등은 조용하고 정돈된 단아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춘천에 정착해 활동하고 있는 한국화가 김아영 씨의 9회째 개인전은 지난 2월 1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충무로 2가 세종갤러리에서 열렸다. 김씨의 이번 전시회에서는 프랑스, 이태리, 헝가리, 그리스, 터키, 루마니아 등 유럽 예술기행에서 목불로 스케치해 온 작품 60여 점과 서예의 필법을 응용한 필치로 그려낸 15점의 자연풍경화가 선보였다. 김씨의 풍경화는 여백미를 중시한 절취화, 소재를 정리해 깔끔하게 처리한 화면은 한 편의 시를 감상하는 듯한 간결성이 돋보인다.

김씨는 "전통적 고졸미와 현대적 감각의 조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현장의 감동을 그대로 화면에 이입시키고자 했다"고 밝혔다.

충청소식

이 현 숙 · 충청일보기자

충북사진기자회 보도사진 전시회

충북도내 일간지와 주간지 사진기자들이 지난 한해 도내 사건 사고의 현장을 기록한 보도사진만을 모아 사진전을 열어 눈길을 끌었다.

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청주문화관 전시실에서 열린 <2004 충북 사진기자회 보도사진전시회>는 지난 한해 동안 도내에서 촬영, 발표된 보도사진의 정수들만을 선보인 자리. 회원 10명이 찍은 사진 가운데 300여 점을 출판받아 이 중 160여 점을 선정해 전시했다.

이번 사진전은 최근 도내 신문기자들로 구성된 충북사진기자회가 처음으로 기획한 전시. 회원으로 충청일보 전경삼·이성희·현덕, 중부매일에 김용수·노승혁, 중앙일보에 전우용·오진영, 한빛일보에 안영현, 충북일보에 인진연, 충청리뷰에 육성준 등으로 구성됐다. 보도사진들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에 걸쳐 사건 사고 스케치 등 일반 뉴스사진과 기획사진, 조(組)사진과 퓨쳐사진 등 다양하게 선보였다.

출품자들은 청남대 개항, 신항정수도 이전, 청주 국제공예비엔날레, 강일식 몰래카메라 사건, 조류독감 등 지난 한해 동안 일어났던 도내의 크고 작은 사건과 뉴스의 인물을 생생하게 담은 사진들이다.

이외에도 쓰레기 매립지, 폐수배출 공장지대의 오염현장, 생활주변의 참담한 현실 등을 예리한 앵글 속에 담았다.

선보인 사진들은 대부분 전국적으로 이슈를 모았던 사건들에 렌즈를 맞추고 있어 격동을 거듭해온 지역사의 흐름이 한 컷의 사진을 통해 다큐멘터리 시각으로 전달된다. 이처럼 사진기자들이 남겨놓은 한 장의 사진들은 몽글한 감동을 주면서 절묘하게 설정된 구도를 통해 사진의 기록성과는 또다른 리얼리티의 예술적 감흥을 보여줬다.

충북지역 중견작가 사라예보... 한국현대미술전 참가

충북지역 중견작가들이 사라예보 국립미술관에 초대하는 <한국현대미술전에 참가했다.

2월 8일부터 17일까지 사라예보 국립미술관에서 열린 이번 전시에는 청주대 김재관 교수, 서원대 안영나 교수를 비롯해 채명숙·유정혜씨 등이 참가했다.

<극동으로부터 밀려오는 2004>를 테마로 한국측 커미셔너는 사양화(人) 김재관씨가 맡았다.

한국과 보스니아는 전혀 다른 역사적 배경과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갖고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으나 근대에서 현대로 전이되는 과정에서 시대적 불행에 체험해야 했던 나라들이다.

이번 초대전은 이 두 나라의 현대미술이 세계 미술 속에서 어떻게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면서 발전하고 있는가를 비교할 수 있는 전시이다.

경남소식

강 동 욱 · 경남일보기자

경남도 문예진흥기금 8억원 지원

경남도는 올해 문학·미술 등 10개 문화예술 장르에 총 8억원의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키로 확정했다.

올해 도내 문화예술 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문학·미술·서예·사진·음악·연극·무용·전통예술·문예일반·창작활동 등 10개 장르별로 작년 신청건수 547건보다 31건이 적은 516건에 2,879백만원의 활동비 지원 신청이 있었다.

도는 신청된 사업에 대해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배분하기 위하여 지난 2월 4일 각 장르별 3명의 전문가로 총 27명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각 분야별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고 자생력이 있

는 단체, 예술성이 높은 창작활동 및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416건에 8억원을 지원키로 최종 확정했다.

장르별로는 문학이 53건에 8,800만원·미술 69건 9,800만원·서예 31건 4,600만원·사진 33건 6,500만원·음악 53건 9,100만원·연극 22건 1억원·무용 27건 6,900만원·전통예술 75건 1억1,100만원·문예일반 23건 7,900만원·창작활동 30건 5,300만원 등이다.

이번에 지원이 결정된 단체나 개인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50~500만원의 기금이 지원되며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도내 문화예술단체의 재정난을 덜어준다는 물론 활발한 문화예술 활동으로 도민의 문화향유기회 제공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립미술관 개관 전시 준비 박차

오는 6월 개관을 앞두고 있는 경남도립미술관은 개관 전시 준비에 여념이 없다. 도립미술관 관계자는 도민과 호흡을 함께 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창조적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구현하는 세계적인 미술관을 지향하기 위하여 다양한 전시회를 기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관전으로는 경남지역 출신의 작고 및 원로작가를 중심으로 하는 <경남미술의 어제와 오늘전>, 박생광의 다색회화(polychrome)와 이우환의 단색회화(monochrome) 비교전시행사, 현대미술전 및 신헌서 소장품전 등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도립미술관은 이들 전시회를 통하여 경남 미술의 창조성 및 예술성을 이해하고 도민의 미술 문화 향수기회를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경남지역 연구작가의 예술적 역량 조명을 통한 도민의 자부심 고취, 경남지역 미술의 창의성과 우수성을 대외에 홍보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제22회 경남연극제 거제서 3월 9일부터

올해로 22회를 맞는 경남연극제가 오는 3월 9일부터 20일까지 거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오는 3월 9일 주관 극단인 거제극단 예도의 <동꿈>을 시작으로 16일 진주극단 현장의 <이걸이 저걸이 갖걸이> 마지막 날인 20일 창원 극단 미소의 <나라모터 사람들>이 공연되는 등 총 11개 팀이 출연한다.

창원과 진주, <월드 뮤직 페스티벌> 열려

2004년 봄을 알리는 대형 음악회인 <월드 뮤직 페스티벌>이 2월 19일 창원성산아트홀과 2월 20일 경남도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

도민들과 함께 하는 신춘음악회 성격을 띤 이번 월드 뮤직 페스티벌은 진주의 남도문화센터가 기획, 서울 예술의전당 등 국내 9개 도시를 순회하는 공연으로 올해 108년 만에 다시 올림피아 열리는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올림픽 축하 공연을 가질 계획으로 있는 초대형 음악회이다.

이번 무대에 서는 음악가들은 기타 듀오인 알 파네비안과 델 모나코, 타악기 주자인 루이스스, 피아니스트 신관웅, 색소폰의 대가인 이정식, 명성황후의 메조소프라노 이태원씨 등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남도문화센터는 내달 15일 서울 예술의전당을 시작으로 울산, 부산, 광주, 전주, 대전 등 9개 도시를 순회 공연하며 24일 서울 상암월드컵경기장에서의 공연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빠듯한 일정으로 인해 출연 극단들이 작품을 선정하는 데 애를 먹지 않겠느냐는 우려와는 달리 대부분의 극단들이 지난해 무대에 올린 작품들을 재구성하거나 개작해 이번 무대에 올리게 됨에 따라 예상외로 출연작이 빨리 정해진 상태이다. 다만 현재 개막식 날짜 등은 주관처인 거제연극협회나 가제문화예술회관의 일정에 따라 하루 정도 변동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그 외 일정은 변동이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대구 · 경북 소식

김 해 용 · 매일신문기자

대구지하철참사 1주기 기념 문화 · 예술 행사

2월 18일 대구지하철참사가 발생한지 1주기를 맞아 대구에서는 무고하게 희생된 192명의 영령

을 추모하고 유족들을 위로하는 각종 문화 · 예술 · 학술 행사가 열렸다.

2월 18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는 희생자 대책위원회가 주최하고 계명대 음대 성악과가 주관한 추모음악회 <레퀴엠>이 열렸다.

지하철 참사로 희생된 고 장정경(계명대 학생)에게 바치는 노래 '먼저 간 제자에게' (이영기 시, 이철우 곡)를 바리톤 김원경이 불렀고, 계명대 성악과 합창단과 관현악, 오케스트라, 소프라노 신미경, 테너 전용수 등 대구지역의 성악가들이 모차르트의 진혼곡 '레퀴엠'을 연주,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달랬다. 같은 시각 대구어린이회관 피크리극장에서는 김천사, 김천복지재단이 주최한 추모연주회 <그리움을 아는 이만아>가 열렸다. 괴테의 동명 시를 제목으로 단 이날 연주회는 내내 숙연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유가족 대표가 신달사 시인의 추도시 '당신은 그날을 기억하십니까?'를 낭송하면서 막을 연 이날 연주회에는 대구지역의 연주가와 성악가들이 출연해 슈베르트의 '영혼의 소리', 부르흐의 '콜 니드라이' 등 비장한 곡들을 연주, 관객과 슬픔을 함께 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대구지하철 참사 발생지역인 반월당 - 중앙로 역 입구에서는 2.18 대구지하철참사 희생자 1주기 범시민 추모위원회가 주최하는 추도식이 유족들의 오열 속에 엄숙히 진행됐다. 또한 2월 16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민회관 대강당에서는 천주교 대구대교구 평신도 사도직 단체협의회가 주최하는 추모연주회 <하늘나라에서 안식율이 열렸다>. 소프라노 고선미, 대금 이만수, 베이스 이의춘, 판소리 이명희, 합창단 뽀에리 칸도레소가 출연했다.

대구시민회관과 지하철 중앙로역 등지에서는 사진공모전을 비롯해 어린이 그림 공모전 등이 마련됐다. 2월 18일부터 20일까지 대구국제보상공원 화합의 광장에서는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최로 참사 사진전이, 8일부터 25일까지 중앙로역 구내에서는 참사 추모 어린이그림공모전 <하늘 땅 그리고 해>가 열렸다. <하늘 땅 그리고 해> 출품작들은 인터넷 사이트 '옥수수' (www.oksusu.co.kr)에서도 전시되고 있다.

참사 원인 규명과 사고 재발 방지를 모색하는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도 잇따랐다.

18일에는 대구 중앙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대구 안전련 주최로 '대구도시방재시스템 현황과 문제점'을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에 앞서 16일에는 대구YMCA 대강당과 대구전시컨벤션센터에서 희생자대책위 등의 주최로 '참사 그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한 심포지엄이 있었다.

부산소식

박 희 봉 · 국제신문기자

김성종씨 6년만에 새 작품

부산 해운대에서 추리문학관을 운영하고 있는 소설가 김성종씨가 6년만에 침묵을 깨고 새 소설을 곧 상재한다. 특히 이번에 탈고중인 원고는 한국과 일본에서 동시에 출간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소설이 한국과 외국에서 동시에 출판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사례여서 문학계의 비상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것이다.

김씨가 준비중인 소설은 추리물로 제목은 '후쿠오카의 살인'으로 정해졌다.

지난 3년여 간 일본을 오가며 현지조사와 작품구상을 마무리한 작가는 이 작품에 이어 도쿄 요코하마 등을 무대로 한 살인사건 추리물을 연작으로 펴낼 예정이다.

각 작품별 등장인물이나 갈등 구조, 사건 해결 방향은 완전히 다르게 전개될 것이라고 작가는 설명했다.

연극 <숙희정희>

연극 <숙희정희>가 화제다. 부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극작가 박현철씨의 작품인 이 연극은 여자들간의 동성애라는 금기를 과감히 다루고 있다.

연희단거리패가 가마골소극장에서 무대에 올린 이 작품은 작가전 연작 시리즈 중 첫 작품이다.

가마골소극장은 앞으로 본격 추리극인 <장미빌라 살인사건>, 노인성 치매를 다룬 세태풍자극 <맨발의 청춘 이찬전>, 고전 해체극 <로미오를 사랑한 줄리엣의 하녀>, 근친상간을 소재로 한 블루 뮤지컬 <쌍생>을 오는 7월까지 잇따라 무대에 올린다.

<자전거도독> 등으로 SBS 드라마 작가로 활동한 박씨는 드라마 <숙희정희>를 찍다가 스태프들이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 바람에 극작가로 방향을 선회했다. 박씨는 연극계에서 터부시하는 살인, 불륜, 동성애, 근친상간 등을 다루고 신인배우를 대거 쓰는 점에서 자신을 B급 작가로 분류하지만 지역 연극계에서는 A급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연극 <숙희정희>는 제즈비언인 숙희 · 정희를 둘러싸고 가짜 레즈비언인 방송국 PD 재서, 숙희

부산, 아시아 영화중심

부산의 '아시아 영화중심' 계획이 본격화 되고 있다.

부산영상위원회는 아시아 지역의 영상위원회 연대를 모색하는 아시아 필름커미션 네트워크(AFCN) 1차 회의를 16~18일 해운대 조 선비치호텔에서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8 개국 14개 영상위원회가 참여해 앞으로의 발전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부산영상위는 오는 4월 일본에서 2차 준비회의를 가진 뒤 10월께 기구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3월부터는 4개 국어로 된 홈페이지를 구축해 로케이션과 영화관련 업체 등 모든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부산국제영화제(PIFF)와 영화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부산이 AFCN 결성에 성공할 경우 '아시아 영화중심'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은 이번 회의와 함께 500평 짜리 국내 최대 스튜디오를 개관했으며 현상 녹음 등 후반기산업 육성도 추진하고 있어 명실상부한 '아시아의 영화도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아시아, 마이나치 등 일본의 유력신문과 할리우드의 영화전문지 등이 대거 참여해 해외의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를 짝사랑하는 외환딜러인 영진이 보여주는 사회적 편견을 절절히 담고 있다.

숙희 정희의 풋풋한 연기와 사랑에 집착하는 영진의 광적인 연기는 매우 인상적이다. 경쾌한 음악과 빠른 이야기 전개는 관객들의 시선을 뺏기에 충분하다.

체 대표, 예술인들이 참석한 창립총회에서는 (주)무등 김국웅 회장을 초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앞으로 광주메세나협회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1서문화운동>. 각 기업에 적합한 문화예술 행사를 선정, 업체의 자발적 티켓 구입, 기업 유휴 시설 무료 대관, 단체 초청 공연 등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 활성화에 적극 기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문화예술 현장 찾아가기, 작은 문화상품 선물하기, 출판협회와 공동으로 애독서 선물하기 등 다채로운 문화사랑 운동도 전개하며 움직이는 예술관(찾아가는 메세나 활동), 메세나 영재상 및 공쿠르 창설을 통한 영재 발굴사업도 적극 전개한다.

김남주 시인 10주기 행사

지난 2월13일은 혁명 시인 김남주(1946~94)가 횡재암으로 세상을 떠난 지 꼭 10년이 되는 날이었다.

10주기를 맞아 시인을 추억하고, 시인의 정신을 이어가기 위한 추모 문화제 <이 두메는 날라와 더불어>가 13~15일 시인의 고향인 해남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열렸다.

민족시인 김남주 10주기 추모 행사위원회가 마련한 이번 문화제는 총제시곡, 초청 강연, 추모제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추모제에는 서울 지역 문학인들과 김 시인을 사랑하는 이들이 답사팀을 꾸려 함께 참여할 예정으로 있어 그 의미를 더했다.

두 차례 공연된 총제시곡 <이 두메는 날라와 더불어>는 시인의 삶과 작품을 영상·시낭송·음악 등 다양한 장르로 풀어낸 종합무대로 시인의 작품인 '저 창살에 햇살이' 등을 노래로 만들어 부른 가수 안치환을 비롯, 극단 토박이와 신명 등 모두 100여 명이 출연했다.

그 밖에 해남 시인의 생가와 광주 중외공원에 위치한 시인의 시비 방문, 소설가 황석영씨 '김남주의 삶과 문학세계' 주제 강연, 망월동 추모제 등의 행사가 펼쳐졌다.

광주·전남영상문화진흥협회 창립

광주·전남지역 영상문화와 산업을 키우기 위한 광주·전남영상문화진흥협회(이상 영진협)가 2월 12일 공식 출범했다.

지역의 대표적인 영상 관련 단체인 (사)광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남도영상위원회,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연합해 탄생시킨 영진협은 앞으로 협회 차원의 사업뿐 아니라 각 개별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적극적으로 공동 보조를 맞춰나갈 방침이다.

영진협은 우선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영상 관련 문화사업인 광주국제영화제를 업그레이드시키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영화제가 열리기 1~2주일 전 프레영화제 형식으로 특수효과(VFX·Visual Special Effect) 영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며 현재 정부가 차세대 영상 핵심산업으로 추진중인 HD제작지원센터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4월 광양·순천·여수시가 공동출자해 발족한 남도영상위원회는 지난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하는 전남지역 전역을 로케이션 장소로 확대하기 위한 작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 섬진강 영화벨트촌 구축, 시나리오 아카데미 설립, 수중영화 촬영 전문세트장 설립 등 중·장기 계획을 마련했으며 광주국제영화제의 한 섹션을 지역에 유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광주·전남소식

김미은 · 광주일보기자

광주메세나협회의 창립

지역 문화예술계의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할 (사)광주메세나협회가 지난 1월 27일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박성용 한국메세나협회의 회장과 지역 협회 창립을 주도한 박금자 광주예총 회장을 비롯, 회원사인 기업

포엠콘서트 2004 첫무대

시를 노래하는 달팽이들의 포엠콘서트 2004년 첫번째 무대가 1월 31일 오후 7시 광주영상예술센터(옛 KBS 광주방송총국)에서 열렸다.

시하나 노래하나가 주최하는 포엠콘서트는 매달 한 명의 시인을 초청, 그의 작품을 노래와 연주음악·영상·그림·사진·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로 풀어내는 무대.

이날 첫무대에는 시인 김준태씨를 초청, '다시 흙위에 서서'라는 주제로 공연을 펼쳤으며 2월 28일에는 시인 안도현씨를 초대, '그 작고 하찮은 것들에 대한 애착'을 주제로 무대를 꾸몄다. 3월 27일에는 정호승 시인의 '슬픔이 기쁨에게'가 공연된다.

전북소식

최기우 · 전북일보 기자

전주 '동문거리' 연극의 거리 된다



전주지역 연극단체들이 전주시 경원동 '동문거리'로 물리며, 이 거리가 연극거리로 변화될 것으로 보인다.

극단 황토(대표 박병도)와 극단 창작극화(대표 홍석찬)가 각각 황토소극장과 창작소극장 등 소극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1980·90년대 동문거리는 전북지역에 연극 부흥기를 이끌었던 연극인들과 연극 애호가들의 인연이 각별한 곳.

현재 동문거리에 입주해 있는 극단은 4개 단체. 1996년 당시 이호중씨가 이끌던 극단 황토가 전주 진북동 모래내로 연습실을 이전하면서 한동안 동문거리에서 터를 잡은 연극단체는 창작극화가 유일했지만, 2001년 극단 하늘(대표 조승철)이 창작극화가 사용하던 연습실을 임대해 터를 잡으며 다시 두 곳의 연극단체가 입주해 있었다. 그 후 지난해 1월 마임극단 '달란트 연극마을'(대표 최경식)이 동문사거리 풍전건물 3층에 입주했으며, 직장인 극단 심심(대표 김병수)도 3월 동문거리 한복판(앵이집 옆 서울마르스 2층)에 자리잡았다.

변화의 물결은 2월 6일 창작극화가 우진문화재단(이사장 양상희)의 도움으로 전주 경원동 전주제일교회 앞 건물 2층에 60여 평 규모의 연습실을 마련하면서부터다. 창작극회 부설 아동극단인 푸른숲(대표 정경선)과 인형극단 까치동(대표 전춘근)도 이 달 중에 같은 건물 지하에 사무실과 연습실을 마련한다. 금암동에 연습실을 두고 있는 극단 명태(대표 최경성)도 다음 달 초까지 극단 하늘이 입주해 있는 같은 건물 2층에 새 연습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립국악원, '도민속으로'

'도민을 벗으로, 전복을 세계로' 도립국악원(원장 이호근)이 도민의 품으로 한 발 가까이 다가간다. 예술단 공연을 통한 전복국악의 위상 확대와 국악교육을 통한 국악의 저변확대를 이어가고 있는 도립국악원이 상설공연을 〈목요국악예술무대〉로 전환하고 국악연수생 심야반을 확대 개설, 도민들의 국악교육 욕을 넓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올해 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국악원이 올 한해 동안 목표로 세운 공연 무대는 1백회, 3개 예술단 정기공연과 신춘음악회(3월)·청소년국악한마당(8월)·대학생합연의밤(9월)·소년음악회(12월) 등 기획공연, 도내·외 문화교류 등 자원공연으로 이뤄지는 무대다. 국악 대중화를 위해 14개 시·군을 찾아 나서는 〈찾아가는 국악공연〉은 특히 눈길을 끄는 사업. 도내 양악과 미술·무용 교사를 비롯해 타장르 예술인을 상설 및 기획공연에 적극 참여시켜 국악의 다채로운 실험도 병행한다. 3월부터 11월까지



도립국악원 판소리 연수생

지 열릴 상설공연은 지난해 매주 금요일에서 목요일로 바꾼다. 7천2백만원의 예산 규모의 대형 공연물 〈소리판타지〉도 계획하고 있다.

'초서의 대가' 진학중씨 개인전

취운 진학중씨(80) 개인전이 2월 19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열렸다.

"선비집안에서 학문으로서 서예를 접하기 시작했다"는 그는 스무 살에 붓을 잡기 시작해 평생 초서 연구에 몰두해 왔다.

"흘림체로 쓰는 난해함으로 인해 일반인들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이는 고전 연구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는 그는 초서작가가 드문 현실에서 독특하고 유려한 조형성을 보여준다. '초서의 대가'답게 글자마다 리듬감이 살아있고, 획의 끝에서 나오는 비박이 뛰어나다.

그는 주먹으로 붓을 잡는 악필법(握筆法)으로 짧은 시간 안에 일필휘지(一筆揮之)로 써내려간다. 매일 몸가짐을 바르게 갖추고 새벽이면 글을 쓰고 저녁이면 한문공부에 매진하는 노력이 있어 가능하다. 이번 전시에는 도연명의 '귀거래사', 소동파의 '작벽부', 이태백의 '장진주', 굴원의 '어부사' 등 평소 즐겨읽던 명문구들을 병풍과 한판으로 보여줬다.

전주공예품전시관 제1회 신예공예작가발굴전

번데기의 허물을 벗고, 이제 막 더 큰 세상으로 날개짓을 시작하려는 신예공예작가들. 서툰고 부족한 면이 있어 더욱 기대되고 소중한 신예작가들을 통해 전북공예의 새로운 흐름을 조망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주공예품전시관(관장 백옥선)의 특별기획전 <제1회 신예공예작가발굴전> 'Neo Craft 展'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함찬 도약을 꿈꾸는 젊은 신예작가들이 참신함과 실험의식으로 무장하고 기존 공예작가들의 형식의 틀을 깨뜨린다.

참여작가는 도내 7개 대학에서 공예를 전공한 졸업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각 대학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됐다.

목공예 방항원(전북대)·유기홍(우석대), 도자공예 이경희(원광대)·김숙경(군산대), 금속공예 김유미(전주대), 귀금속 최규태(원광대)·윤자영(예원대), 섬유공예 이윤희(원광대)·한오경(호원대)씨. 척박한 공예 토양 속에서도 열정으로 공예의 싹을 틔우고 단단히 뿌리 내리려는 이들의 창작활동에 이번 기획전은 큰 힘이 된다.

지난 2월 10일 열린 전시 오픈식에서 선정작가들에게는 신예작가상 상패가 수여됐고, 전시관은 장기적으로 공예품전시관·명품관 우선납품 등 공예작가로서 성장하기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전북예총회장엔 선출된 항병근씨

“남은 인생을 다 바쳐서 전북예술의 발전에 힘을 쏟겠습니다”

1월 29일 전북예총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항병근씨(70·전 도립국악원장)는 “진취적인 열정으로 패기 넘치는 전북예총을 만들겠다”며 행정경험과 문화현장에서 오랜 시간 몸담아온 노하우를 살려 전북예총이 문화활동의 중심체로서의 위상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3차 투표까지 이어지는 동안 지치지 않고 내내 의연한 모습을 보였던 그는 이번 선거전에 뒤늦게 뛰어들었지만 결국 안정과 연륜을 기대하는 예총회원들의 선택으로 예초의 수장이 되었다.

임실 필봉 정월대보름굿



“그동안 묵은 액일량 모두 떨쳐버리고 물물은 바가지에 깨 달라붙듯 복이 다갈다갈 붙으라고 굿을 한 번 쳐보는다...”

신다섯 명이 용기종기 모여 사는 조용한 시골 마을 임실군 강진면 필봉리. 오랜만에 쳐대는 신명나는 풍물 소리로 마을과 사람들의 가슴이 울리고 사람 사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회관 앞에 내건 아궁이 속 장작들도 타들어가며 ‘탁탁’ 풍물 가락을 맞춘다. 풍물 소리가 반가운 아낙들은 신이나 음식을 장만하고, 마을 사람들은 앞마당을 내려 가까이 민속놀이마당을 차렸다.

끓어질 듯 이어지는 태평소 소리 따라 임실필봉농악(중요무형문화재 제11 - 마호) 보존회(회장 양진상)가 30일 강진면을 돌며 시작한 필봉정월대보름굿은 31일 본행사(삶의 축제 푸진 굿·푸진 삶 2004)로 이어졌다.

JIFF 테크 두번째 기획 상영전 개최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 등이 운영하는 JIFF테크가 1월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한국영화아카데미>

미 20주년 기념 영화제>에서 상영됐던 단편영화들을 초대했다. 지난해 12월 개관에 맞춰 열린 첫 기획 상영전 <퀴어 베리타-레즈비언, 게이 다큐멘터리의 지도 그리기>에 이은 두번째 기획전.

한국영화아카데미 출신 중견감독들의 초기 단편영화부터 최근 영화아카데미를 통해 만들어진 단편영화까지 영화아카데미의 20년을 되돌아보는 이번 기획 상영전은 한국의 단편영화들을 접할 기회가 드문 이 지역 관객들에게 다양한 영화감상의 기회를 준다는 큰 의미를 갖는다.

제주소식

박 미 라 · 제민일보기자

제주예총·민예총 ‘한 지붕 두 가족’ 눈길

한국예총제주도연합회와 제주민예총이 ‘한 지붕 두 가족’이 됐다. 예총제주도연합회·제주민예총의 한 집 살림은 올해 제주예술인회관 예산 1억 8,000만원(임대비 1억 5,000만원·시설보수비 3,000만원)이 책정되면서 본격 논의됐다. 당초 8억원이던 예산이 1억 5,000만원으로 대폭 삭감, 우여곡절 끝에 독자기의 도움으로 한 집 살림을 시작하게 됐다.

제주 문화예술계에서 바라보는 이번 예총·민예총의 한 집 살림은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제주 문화예술을 이끄는 양대 축이되 각자의 길을 걸어왔던 두 단체가 이를 계기로 긴밀한 협력 체계를 모색하는 등 제주 문화예술계에 적잖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기대다.

또 기존 제주도문화회관 내 자리했던 예총도연합회가 사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그 자리에 제2전사실 확장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도문화회관 내 전사실은 신청 건수의 절반 정도 밖에 수용하지 못하면서 제2전사실 확장 요구가 지속돼 왔다.

한해 풍농 비는 탐라국 입춘굿놀이

2004 탐라국입춘굿놀이가 2월 3·4일 제주목관아 등 제주 시내 일대에서 열렸다.

예로부터 제주에서 입춘은 ‘새철 드는 날’로써 봄의 시작이며 한해의 농사를 준비하는 날이다. 따라서 도민들은 탐라국시대부터 입춘날(41년)에 묘사된 입춘굿을 비롯해 1936년 김두봉의 『제주

도실기』 등 문헌에 의하면 입춘굿은 90년간 성행해 왔으나 일제시대 이후 미신타파의 명목 아래 탄압, 전승되지 않고 있다. 이를 제주시가 1999년 발굴, 재현하기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고 있다.

제주시 주최·탐라국입춘굿놀이전승보존회 주관, 2004 탐라국입춘굿놀이는 3일 오후 5시 한해의 풍농을 기원하는 낭새코사로 문을 열었다.

낭새코사는 입춘날 탐라왕이 농사시범을 보이기 위해 만든 낭새(나무로 만든 신성한 소·木牛)에 금줄을 치고 부정을 막기 위해 지내는 고사다.

이후 제주 시내 19개동 풍물패와 시민, 행사 출연진은 낭새를 앞세운 채 제주시 중심가를 행진하는 낭새물이를 펼쳤으며, 낭새물이가 도착한 제주목관아 앞마당에선 민요·노래 공연, 대동마당 등이 마련됐다.

4일 입춘날은 제주 시내 19개동 풍물패의 거리도창제로 시작된다. 거리도창제는 걸공패에 심방 2~3명이 긴 상태로 사고가 잦은 마을을 징과 북을 울리며 돌면서 동네의 부정한 것을 막는 거리굿이라고 할 수 있다.

입춘 굿은 오전 11시 김윤수(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기능보유자)심방의 집전으로 펼쳐졌으며, 오후 내 전통문화공연·입춘탈굿놀이·축하공연 등으로 이어졌다.

봄을 부르는 신춘음악회 풍성

타 지역에 비해 일찍 봄이 찾아오는 제주도, 봄을 부르는 신춘음악회가 풍성하게 마련되고 있다.

제주시립합창단(지휘 성상철)과 제주시립교향악단(지휘 이동호)이 각각 1월 27·29일 신년음악회를 개최한 가운데 2월 19일엔 신춘음악회 <제주의 소리2 - 아가구덕에서 북망산까지>를 개최했다.

이번 신춘음악회가 주목되는 것은 제주민요와 관현악의 만남을 주선하는 자리라는 것. 구덕(요람)에서 웅얼대던 어린 시절부터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제주인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든 제주민요 20여 곡을 관현악 연주에 맞게 편곡했다.

옛 제주에서 아이를 재울 때 어머니들이 불렀던 ‘웁이지랑’을 비롯해 육지부에 비해 완만한 박자로 불려지는 ‘꼼짝 꼼짝 고사리 꼼짝’ 등 전래동요, 제주산천의 봄을 노래하는 ‘용천검’, ‘봉지가’, ‘동풍가’, 일터의 고단함을 신명으로 풀어낸 ‘농부가’, ‘망간노래’, ‘이어도 사나’ 등의 제주민요가 선보였다.